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



VOLUME 291 | SEPTEMBER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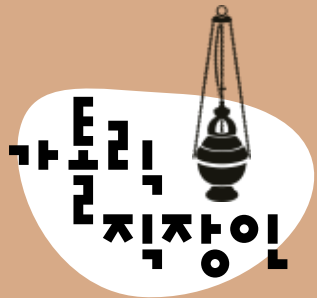
Thurible

A vessel for burning incense

*especially : a covered incense burner swung on chains in a religious ritual.

※ Origin

1400-50; late Middle English turrible, thoryble < Latin t(h)uribulum censer, equivalent to t(h)ür- (stem of t(h)üs) incense + -i--i- + -bulum instrumental suffix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2021년 9월호 / 통권 291호

발행일 2021년 9월 1일

발행인 염수정

편집장 노우식

편집 및 디자인 직장사목팀 편집부

인쇄 상경커뮤니케이션즈

발행처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 별관 5층

전화 02-727-2078 팩스 02-753-3792 홈페이지 www.catholicworkers.or.kr

Copyright 2021©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에 실린 글, 그림 및 사진 등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www.catholicworkers.or.kr

Tel: 02-727-2078, 2080 Fax: 02-753-3792

Mobile: 010-4799-2078, KakaoTalk ID: gikjang

E-mail: gikjang@catholic.or.kr

Contents

VOLUME 291 | SEPTEMBER 2021

Editor's Note 4

특집 6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땀의 증거자

함께 읽는 성경 12 베드로의 첫째 서간

전례와 생활 18 신앙 다이어트를 위한 기도 맛들이기

22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News & Views 25 후원방법 및 소식

교회의 가르침 26 기도학교

32 신앙인들이 알아야 할 생명윤리 21

신앙과 삶 36 내 신앙이 하찮다고?

듣다 읽다 보다 40 고전음악을 듣다

46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52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 고전 문학

56 티나씨의 티비보기

58 성미술 이야기



THE COVER

배론 성지 예수 성심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속이 상하거나, 화가 나거나, 절망스러운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상황과 마주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겪는 그 상처의 뿌리에는, 많은 경우 자신의 기대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는 상황에 대한 좌절과 상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대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과 마주하게 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은 분노와 좌절입니다.

7월을 맞이하며 품었던 우리의 기대, 즉 백신 접종과 확진자 수의 감소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나아져서 곧 일상이 회복될 것 같은 기대를 품었었지만, 점점 그 기대는 탄식으로 변해갔습니다. 긴장된 시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느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 일간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건강을 위해 강변을 걷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보면 불편합니다. 함부로 지적했다가 시비에 휘말릴 것 같아 얼굴만 찌푸리고 재빨리 지나칩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할 순 있지만 마주 선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낀다면 그 일을 삼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계를 모르는 자유는 위험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한밤중에 등불을 밝혀 들고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어떤 이가 비웃듯이 물었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분별하지 못하는 당신이 등불을 들고 가는 까닭이 뭐요?”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등불을 밝혀 든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앞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것이 배려의 마음일 겁니다. 배려는 우리 일상에서 꼭 드러나야 할 사람들의 근본입니다.

거기다 찜통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불볕더위와 열대야가 20일 이상 계속되었는데, 다들 어떻게들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친밀한 이들과 어울려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면 긴장도 좀 풀어지고,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감도 좀 덜어지련만 그럴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무더위 한복판을 통과하며 겨울을 떠올리는 게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가끔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 칼바람을 피하며 겨울을 건디는 로제트 식물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민들레, 질경이, 냉이, 꽃다지, 달맞이꽃, 개망초 등이 여기에 속한다지요. 로제트 식물은 아니지만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잘 자란다는 인동덩굴도 떠오릅니다. 가끔은 식물들의 지혜를 배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힘겨운 나날입니다. 이때야말로 우리 믿는 이들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야 할 때입니다. 주변에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힘겹게 올라간 산마루에서 만나는 서늘한 바람이 지친 몸과 마음을 소생시키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시원한 바람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주님이 주는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뉴시크노테라피학

서울대학교 직장사목팀 본부장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땅의 증거자

최양업(6): 순교자의 행적을 찾는 토마 신부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_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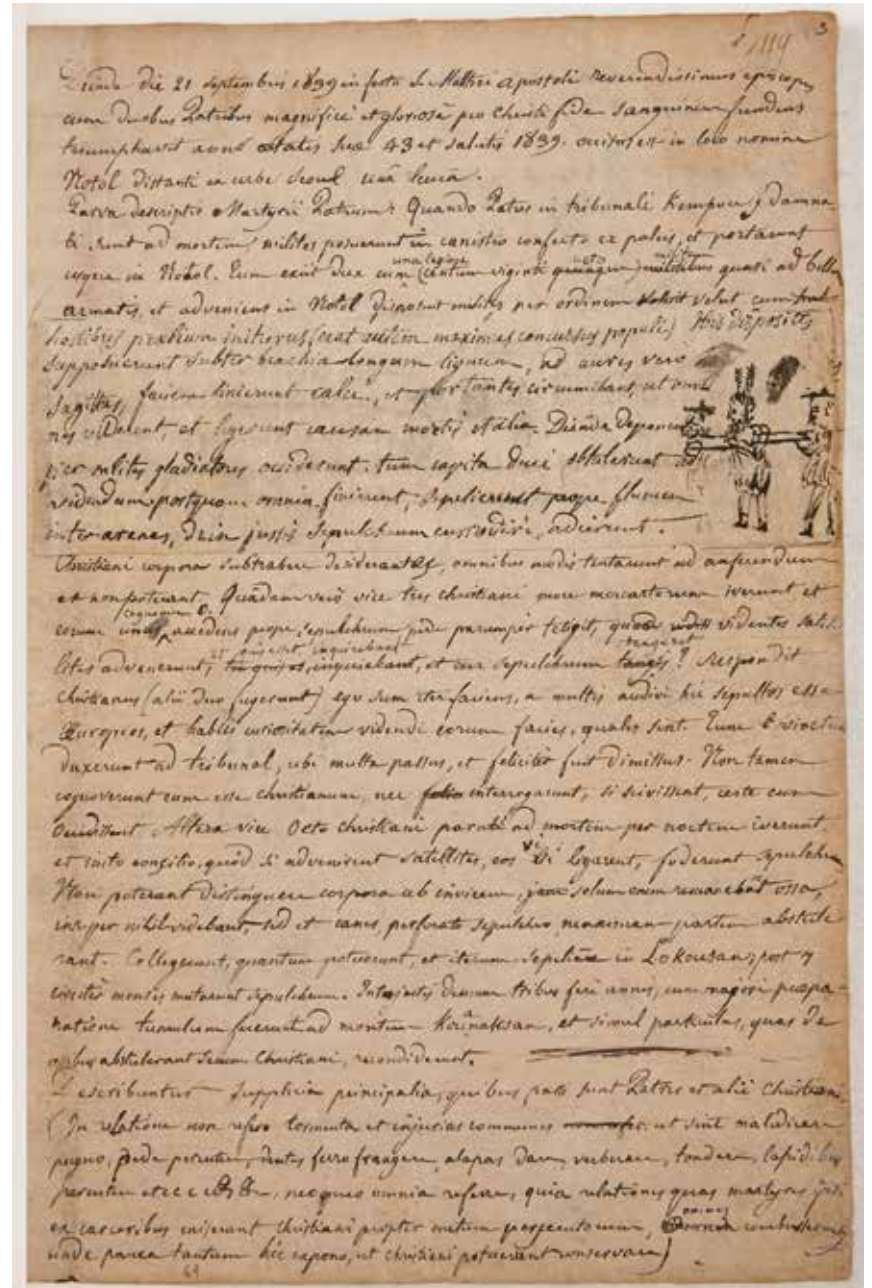
김대건 신부는 2021년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여,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한국교회 역시 이러한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희년’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 번째 한국인 사제였던 최양업도 동갑이었다. 따라서 2021년 ‘희년’을 준비하면서 이분들을 기억하여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땅의 증거자”라는 제목으로 두 분의 삶을 번갈아 조명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이번에는 최양업 신부의 순교자에 대한 공경을 알아보자. 최양업 신부는 부제 시절에 홍콩 본부에 있으면서 페레올 주교가 보내준 기해박해 순교자들에 대한 행적을 사전도 없이 프랑스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한 적이 있다. 그 자료가 장차 79위의 복자가 탄생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었다. 최 부제가 번역한 조선 순교자는 모두 73위였고, 나머지 9위 병오박해 순교자는 매스트르 신부가 번역하였다. 이것을 한데 묶어서 82위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을 교황청에 올렸고, 1857년에 모두 가경자가 되었으며, 이 가운데 79

위가 시복, 시성되었다.

최 부제가 번역한 “(조선) 순교자들의 행적”의 마지막 부분에는 번역을 끝마친 소감이 간단하게 덧붙여져 있다. “이 글을 마치면서 독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수사학에 문외한인 나의 서투른 문장에 유의치 마시고, 그리스도의 유약한 아들 딸들의 초인간적인 용맹에 감탄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께서는 그리스도의 오상을 보시고 새로 탄생한 조선교회를 길이 보존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녹방에 친구하며 여



조선순교사와 순교자들에 관한 보고서 | 1845.3-4 | 출처_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땅의 증거자

최양업(6): 순교자의 행적을 찾는 토마 신부

러분께 하직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 무궁한 복락을 누리십시오. 아멘”

최 부제는 자신이 서투르게 번역하였다고 했지만, 파리의 르그레주아 신부는 몇 개의 오차를 정정하여 바로 교황청에 올렸다.

최양업 부제는 1849년 4월 15일 프란치스코회의 마레스카 주교님에 의해 상해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다. 그는 사제품 후에 매스트르 신부와 함께 두 번째로 배를 타고 백령도를 통해 조선으로 들어오자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신자들과의 만남에 실패하고, 마침내 육로를 이용해 연말에 조선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가 사제로서 조선을 향해 갈 때, 동료인 김대건 순교자를 기억하는 대목이 그의 편지에 나타나고 있다.

“금년에는 양편에서 미리 약속을 하고, 우리는 마카오의 선박 한 척을 타고 백령도(白翎島)로 향하였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친애하는 자랑스러운 전우였고, 지금은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충실한 천상 수호자가 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체포되었던 곳입니다.”

최 신부는 이미 ‘순교자 행적’을 번역할 때, 조선으로부터 동료인 김대건의 순교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김대건이 체포된 곳이 백령도 인근 연평도, 순위도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가 사제서품을 받고 나서 백령도로 들어왔을 때, 순교자 김대건을 회상했던 것이다. 김대건의 순교가 안타깝기는 했지만, 지금은 순교자로서 천상 수호자가 된 동료로 기억했던 것이다. 최 신부는 조선에 들어온 이후 성무활동 이외의 시간에 틈틈이 순교자들에게 대한 증언들을 추가적으로 수집하였다. 그리고 후에 다블뤼 주교가 그 일을 전담할 때, 자신이 수집한 소중한 자료들을 모두 건네주었다.

증언자들을 통해 가장 먼저 수집한 순교자 기록은 그의 아버지 최경환 프란치스코와 이성례 마리아에 대한 자료이다. 다음은 최양업의 8번째 서한에 나오는 그의 부모 이야

기를 요약한 것이다.

(최경환) 프란치스코는 부유한 신자 부모에게서 출생하였고, 신심이 뛰어난 집안에서 자랐다. 신유박해(1801)로 주문모 신부와 많은 신자들이 순교한 후, 집안 사람들은 신심이 식어갔으며, 하루는 친척들의 냉담한 모습을 보고 프란치스코가 편지를 써 두고 집을 나가버렸다. 가족들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고, 남겨진 편지를 보며 대성통곡을 하며 최 프란치스코를 다시 집으로 맞이하였다. 가족회의 결과 만장일치로 25명 대가족이 모두 신앙을 위해 고향과 친척과 재산 등을 모두 버리고 한양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하였다. 프란치스코는 교우촌의 산골과 산골로 이동하며 살아갔고 가난했지만 깊은 묵상과 독서로 교리 강론을 잘하였다.

“프란치스코는 장을 보러 갈 때에는 물건 중에서 제일 나쁜 것이나 흠 있는 것을 골라서 사옵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나무라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나쁜 물건을 사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겠소? 그런 사람

이 없으면 이 불쌍한 장사꾼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소?’하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1851년 서한)

수리산 교우촌의 회장이었을 때, 체포를 위해 온 포졸들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교우촌의 모든 신자들이 포도청으로 끌려갔다. 길을 가던 중에 최경환은 교우들에게 독려하였다. “형제들이여, 용기를 내시다. 이 정도의 여행을 힘겨운 고난으로 여기지 마시다. 주님의 천사가 황금으로 만든 자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재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을 서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바리아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생각합시다.”

포도청에서 신문을 받기 시작하자, 대부분의 교우들이 배교하며 떠나갈 때 최 프란치스코는 곳곳하게 신앙을 증거하여 ‘바윗덩어리’라는 별명을 얻었고, 감옥에서 천주교의 경문을 읽어줌으로써 외교인들조차 감동을 받게 되었다. 그는 기해박해 때 포도청에서 옥사하였다.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맘의 증거자

최양업(6): 순교자의 행적을 찾는 토마 신부

어머니 이성례 마리아는 이존창의 후손으로 어려운 교우촌 살림에도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며 살아갔다. 포졸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대접한 후에, 막내 아기를 팔에 안고 온 식구들이 한양 포도청으로 끌려갔다. 육체적 고문은 견디어낼 수 있었지만 자식에 대한 애정에는 약할 수 밖에 없었다. 그녀는 거짓으로 배교한다고 하면서 일시적으로 감옥에서 나왔다. 그러나 다시 만자들이 마카오로 보내졌음이 발각되어 형조로 붙잡히게 되었다. 이번에는 신문과정에서 깨끗하게 신앙을 증거하여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둘째인 야고보를 보게 되면 마음이 흔들릴까 두려워서 감옥에서 작별인사를 하고 형장에 나아갔다.

최양업은 또 다른 편지에서 순교자 최해성 요한에 대한 증언기록을 정리해 주고 있다. 작은 교우촌을 일구며 신앙생활을 하며 그곳 회장에 임명된 요한은 기해박해 때 체포되었다. 모진 고문과 회유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참수로 순교하였다. “저도 다른 이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무서워

합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해서는 죽기를 사양하지 않습니다.”

최양업 신부는 이러한 순교자에 대한 증언기록을 정리하여, 책임자인 다블뤼 주교님께 모두 넘겨드렸다. 이러한 증언자료 덕분에 124위 복자에는 이성례 마리아가 다시 포함될 수 있었으며, 최해성 요한도 복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양업 신부는 기해박해 순교복자와 순교성인이 탄생될 수 있었던 숨은 공로자라고 할 수 있다.

최 신부는 1859년 편지에서 선교사가 도착하기로 되어있는데 소식이 전해지지 않자 매우 걱정하고 슬퍼하면서도, 교황청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에 기쁨을 표시하고 있다.

“이런 슬픔 중에서도 신부님으로부터 지극히 큰 기쁜 소식을 받고 더할 수 없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 (조선) 순교자들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신 교황 성하의 인정을 받고, 우리 자모이신 교회의 전면에서 공적으로 온 세계에 가경자(可敬者)로 선

포된 소식입니다. 언젠가 우리 순교자들도 성인 반열에 오르시어 세계의 모든 교회에서 공식으로 공경을 받으시는 날이 올 때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영광된 날이 되겠습니까?”

1857년에 당시 82명의 순교자들이 모두 ‘가경자’ 칭호를 받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최부제가 1847년 부제 시절 ‘순교자 행적’을 라틴어로 잘 번역해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바램대로 그들 가운데 79위가 복자가 되었고, 1984년에는 성인품을 받았다.

최양업 신부는 단순히 자료 조사에 그치지 않고, 복자와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순교자들의 전구를 통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아직까지는 조선 순교자들의 전구로 공적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아마 순교자들을 공경하는 우리의 정성

이 미약하고, 우리가 순교자들에게 전구할 줄 몰랐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우리 신자들에게 계몽하는 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신자들에게 순교자들의 전구하심으로 하느님이 주시는 기적을 언도록 가르치면서 순교자들을 더욱 열렬히 공경하도록 인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최양업 신부의 순교자에 대한 기록 수집, 전구 기도, 순교자 공경의 노력이 어찌면 이 땅에 순교복자, 순교성인이 탄생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는지 모른다. 최양업 신부는 현재 순교자가 아닌 뛰어난 덕행과 선교의 공로를 인정받아 처음으로 증거자로서 ‘가경자(venerable)’ 칭호를 얻었으며, 현재 시복을 위한 기적심사가 진행 중이다. 기적은 많을 수록 좋으니, 개인적인 전구를 통해서 좀 더 기적을 만들어봤으면 한다. ☘

묵상

순교자들을 통한 전구기도를 청해본 적이 있는가? 가경자와 복자를 통한 전구기도를 청해본 적이 있는가?

베드로의 첫째 서간

그리스도인다운 삶

허영엽 마티아 신부_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1. 서간의 배경은?

베드로의 사망 시기는 로마 황제 네로의 통치하였을 것으로 간주됩니다.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A.D 64년 이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 내에 있는 로마제국의 다섯 개 교회 신자들에게 이 서간을 썼습니다. 이 지역들은 현재의 터키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폰토스와 갈라티아와 카파도키아와 아시아와 비티니아에 흩어져 나그네살이를 하는 선택된 이들에게 인사합니다.”(1베드 1,1 참조)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읽을 이들을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1베드 1,2) 베드로는 믿음의 시련을 받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준비될 수 있도록 돕고자 이 서간을 썼습니다. “불의하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느님을 생각하는 양심 때문에 그 괴로움을 참아 내면 그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잘못을 저질러 매를 맞을 때에는, 견디어 낸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명예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는데도 견게 되는 고난을 견디어 내면,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받는 은총입니다.”(1베드 2,19-20)

2. 누구에게 쓴 것입니까?

이 서간은 소아시아 북부와 동부에 흩어져 살면서 박해와 고통을 받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 디아스포라(Diaspor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래 디아스포라는 고대 그

리스어로 ‘분산’, ‘이산’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원래 본토밖에 흩어져 살고있는 유대인들을 뜻했습니다. 이 서간을 보면 수신인들이 팔레스티나 지역의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것이 뚜렷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고향인 팔레스티나를 떠나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팔레스티나 지역이 아닌 곳에 살면서 유대적인 종교규범과 생활관습을 유지하던 유대인이나 또는 그들의 거주지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시작은 B.C 8세기 후반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티나 바깥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B.C 587년 바빌로니아의 침략으로 남쪽의 유다 왕국마저 멸망한 후에 비슷한 이주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 특히 이집트로 이주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B.C 4세기 초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자, 근동지역에는 그리스 문화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외국에 살고있는 유대인들은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에 발맞춰서 매우 능동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B.C 1세기 말엽에는 시리아, 이집트, 소아시아,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이탈리아 등에 많은 유대인 공동체인 디아스포라가 나타났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은 팔레스티나 본토의 유대인들보다 그리스 문화에 대해 훨씬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디아스포라에 살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개종하기 전에 종교적인 무지 상태에 살았습니다. (1베드 1,14)

한편, 베드로 서간의 첫머리에 소아시아의 지방 중 다섯 지방(폰토스와 갈라티아와 카파도키아와 아시아와 비티니아)를 언급하며 흩어진 나그네들에

게 편지를 쓴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간의 대상은 소아시아 전역에 산재한 모든 교회나 그 밖의 이교출신으로 세상 이곳저곳에 흩어져 사는 고통과 박해중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집필 장소와 연대

이 서간의 발송 장소로서 바빌론이 언급되는데, 이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옛 바빌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은 물론, 교회가 옛 바빌론에서 활동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가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위협하였고, 그 때부터 유대인들은 로마를 바빌론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이 바빌론을 저주했듯이 이제는 로마를 저주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증언에 의하면 베드로 서간은 로마에서 씌여졌다고 봅니다. 이 서간의 저술 연대가 베드로 사도의 생존시에 저술된 것으로 보면, 베드로의 순교가 A.D.65년 경이므로 그 전에 씌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베드로가 순교한 다음에 저술되었다고 하면 저술시기도 더 후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수신인들을 보면 전 소아시아에 그리스도교가 전파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서간이 씌여진 시기도 A.D.65년 이전 보다는 그 후대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4. 저자

저자는 서간 서문에 사도 베드로라고 자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들의 대변자이며 예수님이 설립한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마태 16,18). 예수님은 부활한 후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마르 16,7),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로서 성령강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사도 1,13). 또한 성령강림절에 대표로 설교했으며 유대인 최고회의에서는 교

회를 변호했습니다(사도 4,19). 그밖에도 고르넬리오라는 이교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선교의 문을 열었고, 사도회의에서 높은 권위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옛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선교 중 순교했고 지금의 바티칸 언덕에 묻혔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의 무덤 위에 바티칸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서간의 저자를 베드로라고 하는 주장에는 몇 가지 의문점도 있습니다. 즉 이 서간은 훌륭한 그리스어로 씌여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베드로가 능숙한 그리스어 실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관해 의문이 가집니다. 또한 이 서간에 인용된 구약성서 구절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리스어 번역 성경(70인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팔레스티나 출신이어서 과연 그리스어 성경을 읽었는지에 관해 자연스럽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나는 성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바누스의 손을 빌려 여러분에게 간략히 이 글을 썼습니다.”(1베드 5,12)라는 저자의 언급이 있습니다. 실바누스는 사도 바오로의 친구로서 사도행전과 바오로 서간의 여러 부분에 서술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서학계에서는 실바누스가 베드로의 위촉을 받아서 베드로 서간을 저술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5. 베드로의 첫째 서간의 내용

신자들의 세례성사를 통한 재생을 논하고, 이 세례성사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내린 선물인 동시에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1베드 1,3-2,3) 교회는 하느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언급합니다.(1베드 2,4-10) 이어서 신자들이 해야 할 본분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에 대하여도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합니다.(1베드 2,13-17) 또한 노예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며(1베드 2,18-25), 박해 중에 인내하고 용감하기를 권고

합니다.(1베드 4,12-5,11) 이 서간은 어느 특정된 지방교회의 특수한 문제를 다루지 않는 반면 광범위하게 교회의 본질적 문제를 취급합니다. 하느님이 이룩하신 구원에는 신자다운 생활이 따라야 합니다. 신자들은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하고, 결혼생활은 부부 함께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생활, 부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생활이어야 합니다.(1베드 3,7)

이 서간에서는 특별히 노예문제도 취급하는데, 당시 노예들을 교회 생활에 마찰없이 참여시키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수난하신 그리스도를 불의하게 매를 맞는 노예들의 귀감으로 내세우고, 돌보는 이가 없는 그들의 고통으로 승화된다고 보았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흠어져 사는 보잘 것 없는 작은 무리이며 세상에서는 나그네의 운명으로 살아가지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세상에서 봉사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수들에게까지도 선행을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말에 교회는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한달 동안 성경읽기

<input type="checkbox"/> 1주간	<input type="checkbox"/> 2주간	<input type="checkbox"/> 3주간	<input type="checkbox"/> 4주간
1베드 1장	1베드 2장	1베드 3장	1베드 4장-5장

시간이 나는 대로 짧게 혹은 길게 자신의 시간에 맞게 읽으십시오. 장소는 어디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매일 읽고 작은 소리를 내면 더 좋습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기가 어려우면 녹음된 복음을 들어도 됩니다(가톨릭 인터넷 굿뉴스 '소리 성경'). 다 읽으시고 아래의 문제를 풀어보세요.

베드로의 첫째 서간을 읽고 다음 문제를 풀어 봅시다.

- ① 베드로가 폰토스와 갈라티아와 카파도키아와 아시아와 비티니아에 흠어져 사는 사람들을 무엇이라 했나요? (1장)
- ② 그러니 () 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6)
- ③ 우리는 무엇으로 새로 태어납니까? (1,23)
- ④ 구원을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요? (2,1)
- ⑤ 갓난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자라나 () 을 얻을 것입니다. (2,2)
- ⑥ 여러분도 살아 있는 돌로서 영적 () 을 짓는 데에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 이 되십시오. (2,5)
- ⑦ 이방인과 나그네로 사는 이들이 영혼을 거슬러 싸움을 벌이는 무엇을 멀리해야 합니까? (2,8)
- ⑧ 하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까? (2,8)
- ⑨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친히 지시고 () 에 달리시어, 죄에서는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은 () 이 나왔습니다. (2,24)
- ⑩ 악을 () 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 해 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9)
- ⑪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겪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4,16)
- ⑫ ()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원로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 의 옷을 입고 서로 대하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5,5)

신앙 다이어트를 위한 기도 맛들이기

전호엽 프란치스코 신부_ 사제평생교육원 부원장

팬데믹 상황이라 더 그렇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가정에서 온 식구가 함께 모여 아침과 저녁 기도(조과, 만과)를 바치던 아름답고 경건한 광경을 오늘날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교회에서 의무적으로 실행하도록 권하는 공적 기도에 대한 참여도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기도에 맛들이기에는 오늘날 세상의 물질적 성공주의와 감각적 향락주의의 손짓은 너무나 매혹적입니다. 마치 다이어트를 하는 기간에 밀려오는 뿌리칠 수 없는 야식의 유혹 같다고 할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건강한 맛이라 손이 잘 가지 않는 이 기도생활에 조금씩 맛을 들여가야만 합니다.

기도하라는 교회의 요청

“끊임없이 기도하라”(1테살 5,17)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과 같이 교회는 초창기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일상생활 안에서 늘 기도하기를 권장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의무적으로 기도하도록(신자들에게는 주일과 대축일의 본분을 이행하도록, 성직자·수도자에게는 성무일도의 의무를 지키도록) 권고합니다. 교회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 생활을 신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물질문명의 거센 물결 속에서 외적이고 감각적이며 세속적인 사정에 몰두하게 되는 현대인의 정신을 내적이며 영적으로 쇠신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에 기도의 중대성을 망각하고 기도생활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내면적 생활의 표현인 기도

기도란 종교에 있어서 가장 내면적 생활의 표현입니다. 죽음과 고통에서의 해방, 영원한 생명, 행복 등과 같이, 인간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계를 체험하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 큰 상위적 존재를 믿으며 의지합니다. 그러한 상위적 존재에 의지하면서 상통하거나 대화하는 것을 기도라고 일컫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상위적 존재가 인격적 신인 하느님이고, 그 하느님과 의 소통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느님 앞에 미소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 부활과 승천에 이르도록 함께한 성령을 통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인격적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신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기도의 바탕을 이루는 특징입니다.

기도의 탁월한 표현인 전례 기도

기도는 성격상 개인적 기도도 될 수 있고 사회적, 공동체적 성격을 띠 수도 있으며, 권위에 의해 공적 가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사회적·문화적 요인과의 연계 안에서 교회의 권위로부터 인정받은 그리스도교의 공동체적 기도나 표현을 우리는 신심 행위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문헌들, 특히 전례 헌장은 이러한 신심 행위를 존중하고 또 그중에 몇 가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도 전례를 이 신심 행위보다 더 높은 차원에 둡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의 전례 행위로는 미사, 성사들, 전례주년, 준성사 그리고 시간전례가 있습니다. 모든 기도 가운데 “신심행사보다 월등한 우위를 차지하는” 전례 기도에 교회는 특권을 부여합니다. 사실 교회는 성서 구절과 교부들의 문헌을 이용하여 여러 기도문을 만들

어 왔고, 때로는 오랜 세월이 걸쳐 기도를 개정하면서 역사적 상황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적응시켜왔습니다. 또한, 신학적, 영성적 내용을 끊임없이 조정하고, 기도문 자체의 품위와 문학적, 음악적 품위도 추구하였으며, 섬세하게 그 규칙을 작성했습니다. 그러기에 다양한 민족들과 의식들 그리고 20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볼 때, 어떠한 신심행사나 어떤 다른 형태의 기도도 교회로부터 전례 기도와 같은 정도의 관심을 끌어내지는 못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전례 기도가 오랜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것으로 경험해 왔고, 그래서 이 기도가 교회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날에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존재의 성화

주님과 사도들의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초대와 명령은 매일 기도, 시간전례의 기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 명령에 충실히 따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미사성제의 거행만으로써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특히 매일 기도인 성무일도를 바침으로써 이 명을 수행합니다. 성무일도는 여러 전례 행위 중에서도 초대 그리스도교 전통에 따라 낮과 밤 전체를 성화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성화는 하느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와 청원의 기도를 바치는 것이며, 이로써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로 바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의 성화를 통해 여기에 참여하는 이들은 존재의 성화로 나아가게 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바치는 기도

우리가 매일 바치는 기도들 가운데 특별히 ‘성무일도’라고도 하는 시간전

례는 ‘교회와 함께’, ‘교회의 이름으로’ 바치는 대표적인 ‘교회의 기도’입니다. 시간전례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의 역할로서 그리스도의 기도가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지속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교회 안에서 시간전례보다 더 전통적인 시간 기도는 없고, 동서방 교회를 막론하더라도 시간 전례보다 더 많이 실천된 기도는 없습니다. 이러한 표면적 사실들은 교회가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 항구히 기도하는 공동체임을 드러내 보여 주며, 더불어 이를 거행하는 모임이나 개인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의 본성이 활발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여전히 시간전례는 법률적 의무를 지니고 수행하는 수도자들과 성직자들에게 한정된 행위로 여겨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백성 역시 교회의 일원이며 전례가 공동체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세례와 견진을 받은 우리 모든 이들에게도 그 의무와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치는 기도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거룩함으로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투쟁과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의 힘을 북돋워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교회의 시간전례는 그런 우리 안에 신학적 덕목들이 더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정화의 빛으로 풍부한 은총을 더해 거친 세상에서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매일의 기도는 갈수록 공동 전례 거행이 어려워지는 시기에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가장 능동적으로 전례에 참여할 수 있는 첩경입니다. 매일을 하느님과의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건강한 기도 생활을 다시금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성 대 그레고리오

St. Gregory the Great (축일: 9월 3일)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 작은형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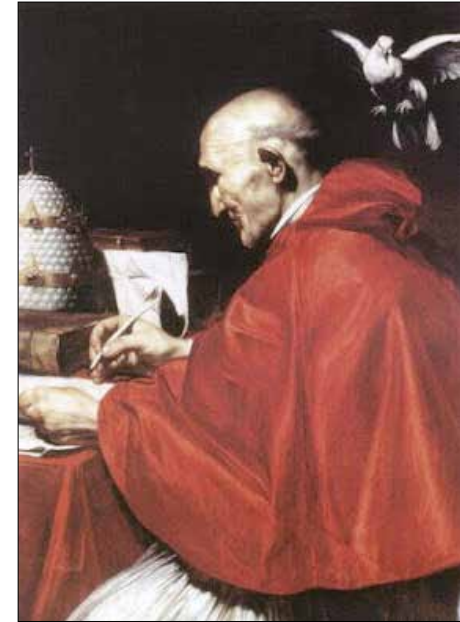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인들 가운데 ‘그레고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초세기의 성인들을 비롯해서, 교황님들의 이름에도 등장하는 그런 유명한 이름입니다. 과연 이 ‘그레고리오’라는 이름 안에는 어떤 뜻이 있는 것일까요?

이 그레고리오, Gregorio라는 이름은 최초 그리스어 동사로부터 기원합니다. 그리스어 동사 그레고레오 γρηγορεύω는 “to keep awake, be vigilant, wake, (be) watch(-ful).”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주 영민하고, 주의 깊은 사람이며 동시에 늘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이 주는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늘 ‘주님께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살아가다보면 수도 없이 많은 유혹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은 우리의 양심과 의식을 잠재우고, 타성에 젖게 하고, 더 이상의 생동감을 찾는 노력마

저 멈추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비롯한 나머지 삶 전체가 모두 그저 반복되는 틀 속에서 습관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원래의 나의 모습을 재발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레고리오’의 삶입니다.

대 그레고리오 교황의 삶도 그렇게 ‘늘 깨어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법학을 공부하신 후에 로마의 총감(Prefect)으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 후에는 베네딕도회 수도승생활을 시작하신 후에 주님께 겸손과 순명으로 봉사하기 위해 성 안드레아 수도승원을 첼리오(Celio)에 설립하셨습니다. 이후에 시칠리아 지역에 6개의 수도승원을 세우시면서 겸손과 순명을 지키길 원하셨습니다. 자주 아빠스에 뽑히셨지만 그 직책을 때마다 고사하셨습니다. 590년에 제64대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교황이 되신 후에도 그분의 서한에 보면 관상적 삶에 대한 향수가 나타



나 있으면서 교황직과 같은 엄청난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근심걱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로마제국시대의 마지막 교황이셨으며, 중세시대를 여는 최초의 교황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따서 그레고리안 성가가 탄생하였고, 최초로 “하느님 종들의 종”이라는 호칭으로 자신을 부르길 원하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로마에 흑사병(페스트)이 한창이었을 때 그레고리오 교황은 이 시련의 시기가 끝날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회개의 행렬을 이끌었습

니다.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 묘가 있는 곳 인근에 당도하였을 때에, 미카엘 대천사가 하늘에 나타나 전염병이 끝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두고 “천사의 성(Castel Sant’Angelo)”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굉장히 목소리가 작아서 보통 당신의 강론을 부제로 하여금 대독하게 하였으며, 매일 열두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점심에 초대하여 같이 식사하였습니다. 그만큼 복음과 윤리에 대한 관심도 많았으며, 복음대로 살아가려는

열망도 크신 분이었습니다.

말년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 수년간 와병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장병이 심하셨기에 그로 인해 선종하셨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에 묻히셨으며, 묘비명에 “하느님의 집정관(최고행정책임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인의 이름과 삶을 통해, 다시금 반추해보고, 다시금 깨어있고, 또한 그렇게 유혹과 태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 늘 ‘깨어있는’ 삶을 사는, ‘그레고리오’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어지는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만큼 늘 깨어있고, 또한 신중한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반성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기도하는 사람들은 수세기동안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마련하신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성 대 그레고리오 교황 -

가톨릭 직장인 후원금 안내

1. 개인 후원: 1구좌 당 70,000원
2. 교우회 후원: 1구좌 당 300,000원 (월보 지면에 광고 게재 가능)
3.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1-784447,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4. 문의: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2-727-2078, 010-4799-2078 / gikjang@catholic.or.kr



* 개인 후원: 양재연

2021년 예비자교리 현황

2021년 직장공동체 예비자 교리를 아래와 같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예비자교리를 하시는 예비신자들을 위하여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교우회명	SC제일은행	강북구청	구로구청	국회	서대문구청	총 / 23명
인원	1	1	2	4	1	
교우회명	서울시청	서초구청	제주항공	한국은행	-	
인원	1	7	5	1	-	

구 분	내 용
교리기간	6월 7일-12월 10일, 총 27주
교리방법	EDWITH를 이용한 비대면 교리
참고피정	12월 12일(주일) 09시 30분~16시, 영성센터 B201
세례성사	12월 19일(주일) 13시 30분, 명동대성당
문의전화	02-727-2078, 2080 / 010-4799-2078

기도 학교

묵상 기도(1): 묵상의 의미

차동욱 시몬 신부_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영성지도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묵상 기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라고 말할 때 묵상의 한자말을 보면 잠잠할 묵(默), 생각 상(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잠잠히 머물며 생각하는 기도라는 말이겠지요. 말 없이 침묵 가운데서 생각을 통해서 하느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묵상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묵상 기도의 시작은 성찰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모습을 성찰할 줄 아는 것이지요. 묵상 안에서 성찰의 모습으로 인간다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찰의 과정 속에서 느끼는 부끄러움은 누구에 대한 부끄러움일까요? 물론 내 행동이 영향을 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끄러움이지만 최종적으로 하느님에 대한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은 이렇게 상대가 있으니 이루어지는 감정입니다. 부끄러울 상대가 없다면 부끄럽지도 않겠지요.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부족함이 보이고, 우리가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는 기준이 되는 상대인 하느님이 계십니다. 그러다보니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끄러움을 통해서 하느님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발견합니다. 묵상 안에서 성찰은 쓰리고 아픈 작업이지만 결국 하느님을 발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파내는 것으로만 묵상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찰이 되었을 때는 그 부족함을 다루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깊은 묵상 안에서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묵상 안에서 하느님이 오라고 손짓하는 자리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나아간다면 사랑이신 하느님의 모습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서서히 온 영혼 안에 스며들 것입니다. 결국 묵상은 하느님 앞에 선 나의 성찰에서 시작하여 나에게 대한 하느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신앙인이 갖는 영적 여정의 변화를 장작이 불에 탈 때의 모습에 비유해서 표현했습니다. 장작이 처음에 타기 시작할 때는 불이 불기 위해서 온갖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러다가 그 연기는 곧 살아나는

불꽃에 의해 완전히 사라지고 장작의 부스러기도 껍데기도 모두 사라지면 서 이제 뜨거운 열과 불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이 우리의 불완전함을 정화시킬 때도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묵상 기도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한 연기가 불꽃에 의해 다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부족한 모든 것이 불타오르고 영혼은 부드럽고 평화롭게 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는 반가움과 위로 이전에 두려움이 앞서게 마련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만날 때 상대의 모습에 비추어 저절로 자신의 모습을 살피게 됩니다. 가장 단순한 예를 들어 혼자 집에 있으면 몰랐던 것을 외출하여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내가 너무 축че 입고 나왔는지, 또는 너무 덥게 있고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게 마련입니다. 상대를 바라보며 나의 모습을 다시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우리의 온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살던 모든 내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인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상대이신 하나님에 비추어 우리를 돌아보면 당연히 우리의 불완전함이 먼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루가복음 5장 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말은 뜻밖에도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상대의 말할 수 없는 신비가, 전해오는 온전함이, 그리고 모든 것을 통찰하는 능력이 나의 불완전함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에서 멈추면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완전함 앞에서 두려워

멈춘다면 우리가 더 나아가서 만나야 할 그분의 사랑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묵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제야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묵상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묵상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묵상은 무엇보다도 하나의 탐색이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사람의 정신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하려고 애쓴다. 여기에는 어려운 주의력 집중이 요구된다. 그래서 대개는 어떤 책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책들은 얼마든지 있다. 성경, 그중에서도 특히 복음서, 성화 상, 그 날이나 시기의 전례문, 영성 교부들의 저서, 영성에 관한 저술들, 창조와 역사라는 위대한 책, 곧 하나님의 ‘오늘’이 펼쳐지는 것이다.”<2705 항>

교리서는 묵상 기도의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묵상 기도를 위한 소재로 무엇을 삼을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묵상의 내용은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탐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적은 묵상 안에서 이루어진 주님과 대화의 실천하는 것입니다. 소재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 담긴 복음이 가장 첫째가는 묵상의 소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과 대화하고자 하는 모든 사건, 사람이 직접 묵상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날의 가장 일반적인 묵상 기도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묵상 기도의 방법은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

na)’라는 베네딕도 수도회식 묵상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거룩한 독서’라고도 불리는 이 영적 독서의 방법은 성경을 다 함께 읽고 마음에 드는 구절을 하루 종일 되새기며 기도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쇄기술이 없던 시대에 필사본으로 쓰인 성경 몇 권만을 가지고 있던 수도원에서, 어떤 대표가 기도나 전례 시간에 맞추어 성경을 읽으면 듣는 사람은 누구나 집중하여 그중의 한 구절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하루를 살았던 것이지요. 이것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서 구약성경을 읽는 유대교의 관행을 당연하게 따라한 것처럼 수도원에서도 이러한 관습이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독서’라는 것은 그러므로 처음에는 ‘듣는 것’이었고, 이 들은 것을 간직하여 묵상하는 과정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입니다. 이렇게 독서가 묵상이 되었듯이, ‘거룩한 독서’는 묵상의 과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묵상에 대해 설명한 다음의 글은 거룩한 독서로서 말씀을 통한 묵상이 어떤 것이었는지 잘 이해하게 만들어 줍니다. “누구든지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정원을 산보하면 떠나갈 때는 몇 가지 꽃을 꺾어가지고 그 향기를 즐기며 하루의 기념으로 삼는다. 마치 것처럼 어떤 현의에 대하여 묵상을 했으면 특히 감동한 성찰 혹은 우리의 진보에 유익한 성찰의 두세 가지를 택하여, 저녁까지 그 영적 향기를 즐기며 이 날의 묵상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신심생활입문 II, 제 6장」 묵상의 방법은 이렇게 말씀의 꽃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하나의 향기를 오래도록 간직하여 즐기는 것과 같습니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 성인은 이러한 묵상의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나중에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듣고 읽는 것을 친숙하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은 묵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나친 부담이나 주저함을 갖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묵상이 생각과 탐색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결과에 연연하여 기도한다면 정작 그 말씀을 주시는 상대인 예수님을 기도 안에서 잊고 맙니다.

그런 면에서 아빌라의 데레사의 묵상에 대한 설명이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묵상의 정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데레사 성인은 묵상기도란 하느님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하느님과 자주 이야기하며 사귀는 친밀한 우정의 나눔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기도가 하느님과의 대화이고 첫째 목적은 하느님과의 친교가 되어야 하듯이, 묵상은 침묵 가운데서 하느님과의 친밀한 사귀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



신앙인들이 알아야 할 생명윤리 21

존엄한 생의 말기와 적절한 돌봄 3

박은호 그레고리오 신부,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정상적 간호(normal care)에 대해서

지난 호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톨릭 교회의 「안락사 선언」은 말기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균형적 수단과 불균형적 수단의 구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균형적 수단의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중단되지 말아야 할 ‘정상적 간호’(normal care)에 대해서도 이야기 합니다.

수단을 사용함에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임박할 때,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생명의 연장만을 초래할 처치를 포기하는 결정을 양심 안에서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유사한 경우에 환자에게 마땅히 제공되어야 할 정상적인 간호는 중단하지 않아야 한다.(안락사 선언, IV)

즉, 정상적 간호에 해당하는 것들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결코 중단하지 말아야 할 의무적인 처치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정상적 간호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황청 사회복지평의회에서 1981년 발표한 “중환자와 임종자에 관한 윤리 문제”라는 문헌에서는 이러한 정상적 간호에 해당하는 것들을 “의무적인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말하며 영양공급, 수혈, 주사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단들은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환자를 존중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수단들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들 외에도 통증 관리, 기관지 분비물 제거, 욕창 관리, 위생 관리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기 환자의 통증 관리의 문제

환자가 자신의 생의 말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욕신을 잘 돌봐야 합니다. 지나친 고통이나 배고픔과 목마름에 짓눌리는 생의 말기는 결코 환자의 존엄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통증 관리와 영양/수분 공급을 정상적 간호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교에서 고통은 자신의 죄를 보속하고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에 참여하는 좋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통증이나 고통은 오히려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힘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때문에 말기 환자의 통증은 진통제를 통해서 적절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다량의 진통제가 환자의 수명을 단축시킬 위험도 있기에 진통제의 사용은 신중하게 의학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의 고통이 극심하여 다량의 진통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설사 환자의 수명이 일부 단축되더라도 진통제 사용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 진통제 사용의 목적은 환자의 죽음이 아니라 오직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종자에 대한 종교적 도움

육신적인 돌봄은 매우 기본적인 것이며 중요하지만, 환자에 대한 돌봄은 거기에서 그칠 수 없습니다. 영혼과 육신이 하나인 인간에게는 영적인 돌봄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종교적인 도움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죽음이 다가오면서 동반되는 영적인 위기는, 교회가 임종자와 그 가족에게 희망의 빛을 가져다 주도록 요구한다. 신앙만이 죽음의 신비에 대하여 희망의 빛을 밝힐 수 있다.(새 의료인 헌장 159항)

이러한 종교적 도움에는 무엇보다 죽음에 복음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종자는 자신의 죽음에서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원목자들(사제, 수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책무는 곧 임종자에 대한 복음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움과 더불어 임종자와 함께 동반하며 그의 필요에 응답하며 그를 진정으로 환대할 수 있는 애덕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교는 늘 고통받는 이들, 병자들 안에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봉사해 왔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앞둔 이들에 대해서 관심, 이해, 배려, 인내, 나눔의 태도를 보여주면서 그들과 참된 친교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덕의 모습에는 당연히 기도가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임종자를 하느님과의 친교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의 친교를 통해서 임종자는 성인들과의 친교 안으로 들어가며 이러한 새로운 관계 맺음을 통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것과 같은 모든 관계들이 새롭게 정립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사(聖事)’ 거행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고해성사와 병자성사 그리고 성체성사를 통해서 환자가 자신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환자가 임종에 임박해서 혼수 상태에 들어가기 전까지 성사 요청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영혼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병자성사는 죽음을 위한 성사가 아니라, 영혼과 육신의 치유를 위한 성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성사 거행을 미리 미리 청하면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생의 말기: 삶을 완결하는 시간

생명(生命)이라는 한자의 목숨 명(命)자는 동시에 ‘명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삶이란 우리가 스스로 부여한 것이 아닌 받은 것이며,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할 소명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의 말기는 자신의 삶을 완결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경우 생의 말기는 고통스럽고 질병으로 인한 무기력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인생의 어떤 순간도 무의미하거나 불필요한 순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의료 행위는 존재하지만, 불필요한 생명, 무의미한 생명은 없습니다. 오히려 생의 말기는 자신의 삶을 완결하는 시간으로서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말기 환자나 임종자를 돌보는 이들은 그들이 자신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하느님과의 결정적인 만남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환자는 존엄한 생의 말기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내 신앙이 하찮다고?

가톨릭 직장인 모임교재팀



1. 주님을 초대한다.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 삶을 바라본다.

어제 저녁 언니와의 일이 떠오른 스텔라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오랫동안 언니가 신앙을 갖도록 기도해왔었는데, 그 기도 덕분인지 언니가 친구로부터 개신교 성경 세미나에 초대받은 후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언니와 함께 성당을 다니지 못하게 된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하느님을 알게 되어 고맙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언니가 다니는 교회에서 진행되는 성경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동안 가톨릭에서 접해왔던 것과는 달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 모두가 역사적 사실과 맥을 같이 한다고 강조하는 등, 세미나의 내용과 신도들의 분위기가 좀 낯설기도 하고 나름 신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꼭 저렇게 증명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들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발생했다. 언니의 말인즉 “가톨릭 신자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내용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어.”라는 것이었다.

언니의 이 말은 성서공부와 봉사활동 그리고 단체 생활도 꽤 오랫동안 하며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오던 스텔라에게는 적잖은 충격이었다. 또한 자신의 신앙을 하찮게 여기는 듯 한 언니의 말보다 그 말에 딱히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게 더 화가 났다.

Question

성경과 가톨릭 교리 지식이 부족하여 비신자나 개신교 신자들 앞에서 당황했던 경험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3. 하느님께 귀를 기울인다.

1) 성경 본문을 읽고 함께 나눈다.

코린토 2서 13장 5절(공동번역)을 읽어주십시오.

“여러분은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따져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만일 깨닫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한 것입니다.”

2) 성서본문 중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외친 후 묵상한다.

3)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하지 않기 위하여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 나누어봅시다.

4. 교회의 문헌을 읽는다.

성경은 복음화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끊임없이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스스로 복음화되지 않는다면 복음화하지 못합니다. 하느님 말씀이 반드시 “점점 더 온전하게 모든 교회 활동의 중심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찬례에서



경청하고 거행하는 하느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기르며 그들에게 내적인 힘을 주어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복음의 참다운 증인이 되도록 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사의 낯은 대립을 오래전에 이미 극복하였습니다. 활기차고 효과 있는 말씀의 선포는 성사를 받을 준비를 하도록 하고 성사 안에서 그 말씀은 최대의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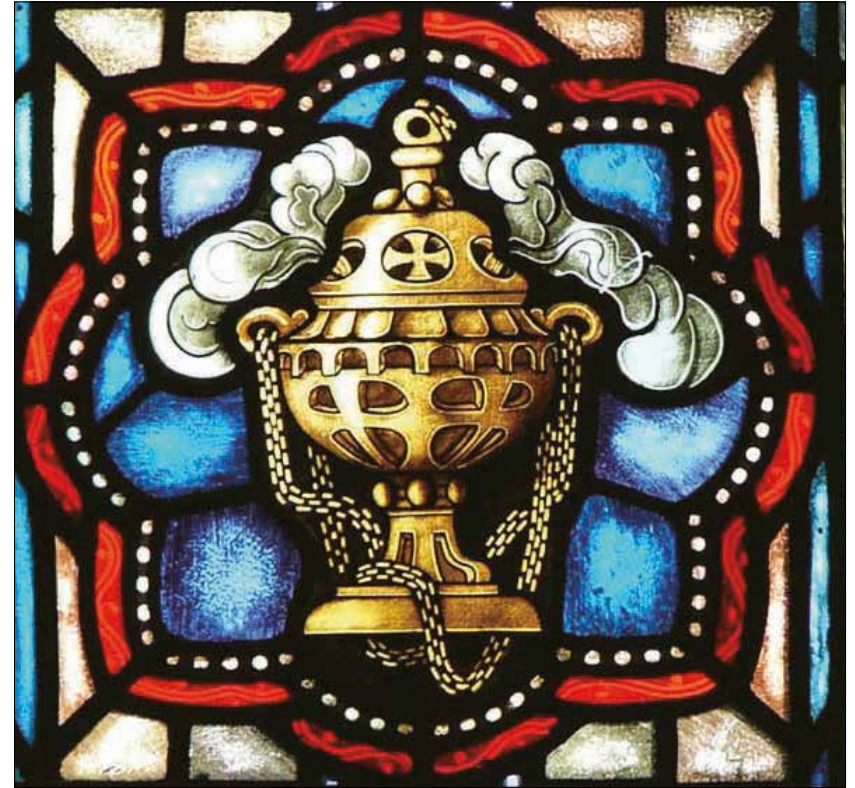
성경 연구는 모든 신자에게 열린 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 전수의 모든 노력과 교리 교육은 근본적으로 계시된 말씀으로 풍요롭게 됩니다. 복음화를 위하여 하느님 말씀과 친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 본당, 가톨릭 단체들은 개인과 공동체가 기도하며 성경을 읽도록 독려하는 가운데 진지하고 지속적인 성경 공부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눈먼채로 찾지 않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으므로,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은,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기다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계시된 말씀의 숭고한 보화를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복음의 기쁨 174, 175항 중 발췌]

5. 실천계획을 세운다.

6. 기도나 성가로 모임을 마친다.

Cornerstone



A thurible is depicted in a stained glass window, St. Ignatius of Loyola Church, Chestnut Hill, Massachusetts. (Photograph by John P. Workman, Jr.)

향로(香爐, Thurible, Latin:thuribulum)

다양한 향기를 내는 향을 불타는 솥 위에 놓을 수 있도록 만든 화로, 또는 제구이다. 때로는 향합(censer)이라고도 한다. 불이 붙은 솥을 담은 둥근 그릇은 우묵한 접시 형태를 하고 있으며 불룩한 뚜껑이 달린 컵 모양의 금속 용기 안에 담겨 있다. 화로는 보통 세 개의 쇠줄로 지탱되며 넷째 쇠줄은 뚜껑의 꼭대기에 달려 있어 세 개의 쇠줄이 달려 있는 손잡이를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넷째 쇠줄을 당기면 솥 위에 쉽게 향을 넣을 수 있다. 모든 미사와 아침 기도 및 저녁 기도의 찬가 때, 행렬을 하는 동안, 성사 집전과 연관된 다른 전례 예식을 거행할 때에도 향로를 사용할 수 있다. 관습적으로 대축일 미사, 서품 미사와 같은 특별한 미사, 장례 미사 등 성대한 미사를 거행할 때 향로를 사용한다.

향을 태우는 관습은 동양의 관습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에는 없었다. 최초의 기록은 출애굽기(30,9)에 나오며, 이것이 이스라엘의 종교의식(宗教儀式)에 도입된 것은, 기도와 희생을 가장 자연적이고 아름답게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위기(16,20)에 따르면, 향은 유향(乳香, frankincense)을 비롯한 각종 향료에다 방부제용 소금을 섞어 잘 뿜은 가루로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의식에 사용한 향은 번제물(燔祭物), 희생제물의 지방(脂肪), 곡식, 상징적 제물 등과 함께 태워지거나 향 하나만을 태우기도 하였다. 향만을 피우는 경우에는 특별히 만들어진 분향단(焚香壇)(출애 30,1-10), 황금제단(민수 4,11), 향로 속에서 태워진다.

황제들은 자신에게 분향된 사실로 인하여 신성(神性)을 얻었다고 생각했고, 박해시대에는 많은 신자들이 황제의 동상 앞에 분향하여 충성심을 보이도록 강요당하였다. 당시의 교우들은 이러한 분향을 배교행위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4세기 이후 교회의 전례에서 서서히 향이 사용되기 시작하여 먼저 장례의식에 향이 사용되다가, 8세기경에는 제단, 성직자, 신앙심의 축성과 축복의 상징으로 바뀌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에 있는 거대한 향로, “보타푸메이로(Botafumeiro:연기방출기)”가 유명하다.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고보의 유해가 매장된 곳으로 유명하다.

고전 음악을 듣다

쇼팽 - 감미로운 녹턴에 숨겨진 성모송

조병선 바오로 청주대 법학과 교수

쇼팽(1810-49)은 낭만파 음악의 대표주자로 자주 거론되지만, 실제로는 음악사적으로 전무후무한 돌연변이라고 보기도 한다. 음악 양식으로 볼 때, 피아노에만 집중했던 쇼팽은 선대 음악가의 영향도 거의 없었고 딱히 쇼팽의 후대에도 그를 이어 받았다고 할 만한 음악가도 없었다. 언어의 연금술사 시인처럼 ‘피아노의 시인’ 쇼팽은 마치 피아노를 처음 설계한 사람만이 아는 비밀을 풀어헤친 것처럼 피아노의 기능을 미의 극치에 이르도록 그 극한까지 살려냈다. 그러기에 ‘야상곡’이라고 번역되는 쇼팽의 녹턴은 나이가 들어도 아직도 젊은 감수성이 남아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올해 4월에 타계한 폴란드의 음악학자 얀 베코프스키(Jan Wecowski)의 연구를 통해 쇼팽의 피아노 작품에 폴란드의 성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역시 삶과 죽음에 가장 진지한 종교곡이 가장 우리의 심금을 울릴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낸 셈이다. 1999년 발표된 그 논문에서는 성가와 쇼팽의 악보를 제시하여 비교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쇼팽 작품의 근저에 깔린 가톨릭 성가를 언급하는데 그치고자 한다.

우선 쇼팽의 조국 폴란드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외세 침략을 빈번히 받은 국가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을 배출할 정도로 뾰족까지 가톨릭이다. 폴란드는 다른 가톨릭 국가와 달리 로마의 교회법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라틴어가 아닌 지역 언어인 폴란드어로 미사곡을 불렀는데, 마치 민요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대중에게 친숙하였다. 폴란드의 민요에 가까운 미사

Chopin: Noctunes
Maurizio Pollini
Release Date: October 4, 2005
Duration: 01:30:21
Label: Deutsche Grammophon(DG)
ASIN: B000B8ISN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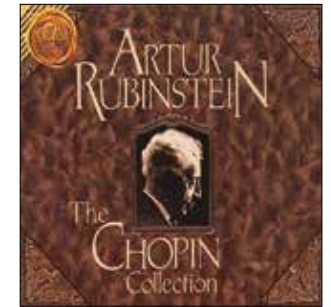


성가곡은 폴란드의 위대한 시인들의 가사에 폴란드 작곡가들이 창작한 곡이었다. 어린 쇼팽은 저녁 가족 기도회 때 자연스럽게 폴란드 성가를 들으며 자랐고, 15살에(1825-26년) 성당 오르가니스트가 되면서 그 반주로 더욱 친숙해졌다. 20세의 쇼팽이 러시아에 점령당한 조국을 떠나 갓 파리에 도착한 1831년 12월 25일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 내가 얼마나 조국의 노래를 느끼면서 사는지...”라고 쓰고, 쇼팽의 말년 1847년 집에 보낸 편지에도 “... 비스와(Wisła) <폴란드 크라카우를 흐르는 강>의 노래를 허밍으로 부르며 피아노를 쳐요”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폴란드의 ‘종교적 민요’는 쇼팽의 일생 내내 마음 깊이 살아있었다.

시간적 순서대로 성가를 사용한 쇼팽의 작품을 보자. 쇼팽이 16세 나이에 작곡한 ‘장송행진곡 C단조(Op.posth.72 No.2)’는 1826년 거국적으로 거행된 폴란드의 애국지사 ‘스타치치(Stanisław Staszic)’의 장례식을 계기로 작곡되어, 쇼팽 사후 6년인 1855년에 출판되었다. 쇼팽은 유언으로 자신의 미출판 악보를 전부 불태우라고 하여 하마터면 없어질 뻔했던 곡이다. 이 곡에는 ‘살베 레지나(Salve Regina)’의 폴란드어 성모송 ‘여왕님께(zawitaj Królowa)’가 보인다.

쇼팽의 가장 유명하고 대중적인 곡인 ‘녹턴 2번 Eb장조(Op.9-2)’는, 1830-31년 쇼팽의 나이 20세에 작곡되었는데, 쇼팽의 첫사랑 마리아 보진스카(Maria Wodzińska; 귀족가문의 딸로 어머니의 허락으로 1836년 비밀약혼을 했으나 아버지 백작의 반대로 결혼이 무산되고 1841년 다른 남자와 결혼하였으나 결국 후에 이혼함)에게 헌정되었다는 주장도 있을 정도로 애상적이다. 그런데 여기에 두 곡의 18세기 폴란드 성모송, ‘성모님 당신을 영원히 찬양하리(Ciebie na wieki wychwalać będziemy)’, ‘성처녀 마리아 만세(Bądź pozdrowiona Panieńko Maryja)’와 13세기 폴란드 성모송 ‘주의 어머니(Bogurodzica)’가 들어있다. 우리들의 심금을 울리는 이렇거나 아름다운 유명한 쇼팽의 녹턴 2번의 멜로디에 성모송이 숨겨져 있었다니? 쇼팽이 허밍으로 흥얼거릴 정도의 대중적인 폴란드 민요에 가까운 성모송이었던 만큼, 다른 작곡가의 작품, 예를 들면 1796년 파리에서 상연된, ‘장 피에르 솔리에(Jean-Pierre Solié, 1755-1812; 프랑스의 첼리스트 겸 가수)’의 오페라 ‘비밀(Le Secret)’ 속의 아리아 ‘질투해요(Qu’on soit jalouse)’에도 이미 동일한 멜로디가 있다. 종교가 생활의 기준이자 원칙이었던 시대, 음악가들의 이를 수 없는 금지된 사랑은 성모송을 통해 우회적으로 표현되었던 시절이 있었던 만큼 - 예컨대 페르골레지의 ‘스타바트 마테르(Stabat Mater; 서계신 어머니)’나 모차르트의 미사 c단조(K.427) - 쇼팽의 이를 수 없었던 사랑을 느끼게 된다.

1833년 작곡한 스케르초 1번 B단조(Op.20)에는 18세기 폴란드의 크리스마스 캐롤 ‘잠자는 아기 예수(Lulajże Jezuniu)’가 들어있다. 원래 ‘스케르초’는 베토벤이 활성화시킨 장르로서 해학과 농담이 들어있다고 하지만, 보통 쇼팽의 이 스케르초에는 그의 고뇌, 절망의 한숨, 폭풍과 같은 열정이 끓어오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고국을 그리며 머나먼 이국땅 파리에서 고향의 즐거웠던 크리스마스를 회상한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곡이 이해가 될 것이다.



The Chopin Collection (11CD Box Set)
 Arthur Rubinstein
 Release Date: November, 1991
 Duration: 11:36:28
 Label: RCA Victor Europe / BMG
 ASIN: B0000260W3

쇼팽은 짧은 피아노 소품도 많이 작곡하였는데, 소품 두 곡을 보기로 하자. 1833년 작곡한 쇼팽의 ‘볼레로 C장조(Op.19)’에는 폴란드에서 사순절에 불려지는 노래 ‘오 예수님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서(Ach mój Jezu, jak Ty klęczysz)’가 들어있다. 12세기의 라틴어가 ‘디에스 이라이(dies irae, 진노의 그날)’의 폴란드 버전이다. 원래 볼레로는 강렬한 3박자의 리듬에 캐스터네츠의 반주로 남녀 간의 애정을 노래하는 춤곡이다. 라벨의 볼레로가 가장 유명하지만, 쇼팽도 1833년 파리에서 당시 유행하던 춤 볼레로를 모티브로 하여 작곡하였다. 그런데 쇼팽은 남녀 간의 애정을 표현하는 유행 춤곡에 사순절의 성가를 넣어 승화시켰다는 점이 놀랍다. 칸타빌레(Cantabile) Bb장조(Op. 43)는 1834년 작곡되었지만 사후 1931년 출판된 1분도 채 안되는 짧은 곡인데, 쇼팽 당대의 19세기 폴란드의 성모송 ‘성모 마리아께 인사드리며(Bądź pozdrowiona, Panieńko Maryja)’가 보인다.

다음으로는 작곡시기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1837년 이전에 작곡된 것으로 알려진 쇼팽의 연습곡(Etude) 중에서 몇 곡 선별하여 보자. 먼저 ‘연습곡 A단조(Op.25, No.4)’에 성모송 ‘거룩한 어머니(Matko Najświętsza)’가 있고, ‘연습곡 C#단조(Op.25, No.7)’에는 앞에 언급한 스케르초처럼 크리스마스 캐롤 ‘어린 예수님(Jezus malusieńki)’이, ‘연습곡

A단조(Op.25, No.11)’에는 쇼팽 당대의 폴란드 작곡가 ‘카롤 쿠핀스키(Karol Kurpiński)’가 1822년 작곡한 미사곡 ‘당신의 발걸음에(Na stopniach Twego)’가 있다. 아마도 쇼팽이 15세 때 성당 오르간을 반주하면서 익힌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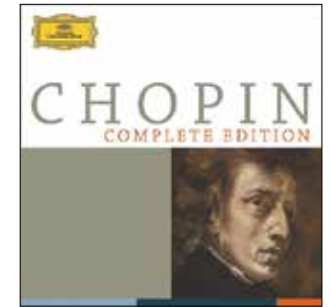
한편, 쇼팽의 라르고(Largo) Eb장조(WN.61)는 1948년 폴란드 음악학자 루드빅 브로나르스키(Ludwik Bronarski)가 파리음악원 도서관에서 악보를 발견하여 쇼팽이 1838년 7월 6일자로 작곡하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쇼팽은 이 곡에 당대의 폴란드 작곡가 ‘안 카제브스키(Jan Nepomucen Kaszewski)’의 1816년 찬송가 ‘폴란드 만세(Boże cós Polskę)’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쇼팽이 1847년 작곡한 17곡을 모은 가곡집 ‘멜로디아(Melodia)’(Op.74, WN.90)의 9번째 곡 ‘꿈쩍한 십자가를 지신 산에서(Z gór, gdzie dźwigali strasznych krzyżów brzemię)’를 보자. 제목이 나타내듯이 전체 17곡 중 가장 드라마틱한 곡으로 흔히 ‘쇼팽의 탄식(Skarga Chopin)’이라는 부제가 붙을 정도로 쇼팽의 고뇌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쇼팽은 이 곡에 폴란드의 성가 ‘슬픔이 내 영혼을 덮치네(Żal duszę ścisła)’와, ‘가장 성스러운 어머니(Matko Najświętsza)’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Nie opuszczaj nas)’를 사용하고 있다. 쇼팽의 고뇌를 이해하기 위하여 첫 곡의 가사 처음 부분을 조금만 보자.

“슬픔이 내 영혼을 덮치네, 내 심장은 고통으로 쓰러려.
 예수님 돌아가실 때 흘리시는 피땀을
 그 밑에 업드려 받으며 내 심장도 사라져가네”

쇼팽의 유언으로 누나 루드비카는 쇼팽의 심장을 떼어내 코냑에 밀봉하여

Chopin Complete Edition (17CD Box Set)
 Martha Argerich / Claudio Arrau
 Release Date: November 16, 2009
 Duration: 18:39:40
 Label: Deutsche Grammophon(DG)
 ASIN: B002NFCHBA



몰래 폴란드로 반입하였고, 파리에 남은 육신은 파리 ‘페르 라세즈(Père Lachaise)’에 묻혔지만 심장은 고국 폴란드에 묻혔다. 쇼팽의 음악을 사랑하였던 나치의 점령군 사령관조차 히틀러의 바르샤바 폭격 명령으로부터 그 심장을 지켜주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르샤바 폭격 후 쇼팽 심장의 송환식(물론 나치 선전용으로 찍었겠지만) 영상 필름이 흑백으로 흐릿하게 남아있다. 물론 그 덕분에 쇼팽 음악을 사랑했던 그 사령관은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쇼팽에게서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하는 반음계는 그의 시간에서 자유로운 ‘템포 루바토’(정격 박자를 미묘하게 약간 흔들어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하는 기법)가 합쳐져 우리의 심금을 울린다. 반음이 주는 미묘한 감정의 동요는, 쇼팽이 파리에 체류할 당시 크게 유행하였던 벨리니의 오페라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베코프스키의 탁월한 연구논문으로 알게된 사실은 모든 노래 중에 종교곡만큼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영역도 없다는 것이다. 쇼팽의 유명한 녹턴 2번을 좋아한다면, 사랑의 슬픔만큼 애달픈 애상이 예수님의 고통이나 성모님의 눈물로 흐르는 노래, 그의 가곡 9번 ‘쇼팽의 탄식’도 꼭 들어보자! 잠시 소풍을 나온 우리네 인생에서 사랑의 인내야말로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아름다운 쉘펠라 -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

심연선 소화테레사_ 이스라엘 전문 여행 가이드

에일랏에서 편안한 침을 즐기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니,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가기도 좋지만 조금 더 그 근처를 돌아보고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예루살렘 인근 지역들을 둘러보고 가자’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가 사해지역, 아라바 골짜기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엔 반대편인 유다산지 서쪽 지역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 지역들은 아십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가기 매우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차를 빌려서 다니셔야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네비게이션 지도가 비교적 잘 되어 있어서 잘 찾으실 수 있습니다. 웨이즈waze라고 하는 앱이 아주 유명합니다.

브에르 쉘바에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본다고 하면, 마레사maresha(벧 구부린beit guvrin)이라고 하는 곳부터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브에르 쉘바에서 북쪽으로 약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이곳은 유대인 정착촌과 마을로 이루어져 있고, 마레사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הנגפּו “셤펠라”라고 합니다. “낮은 구릉지대”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헤브론이 있는 중앙 산지로부터 서쪽 해변까지의 10~15km 에 해당하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모세 성인으로부터 그 지역에 대한 언급을 듣게 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평원지대’가 바로 이 곳입니다.

예루살렘을 포함한 중앙 산악지대는 단단한 석회암이 주를 이루는데 반해, 이 지역의 돌들은 부드러운 석회암으로 되어있고 중앙 산지에서 내리는 비의 약 80%정도가 서쪽지역으로 흘러내리다 보니 물이 풍부합니다.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서 그래도 비교적 다른 곳보다 비옥하여 작물을 심고 키우기에 적합한 땅 세 군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역

입니다. (다른 두 곳은 이즈르엘 평야, 골란고원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 성인이 이 땅에 정찰대를 보낼 때 에스콜 골짜기에서 포도송이 하나가 달린 가지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둘러메는 구절 (민수 13,23)이 나오는데, 그 에스콜 골짜기가 이곳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포도 스케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로 이스라엘 관광성은 엠블렘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평원지대라고 번역이 되어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사실 이곳은 낮은 고도이지만 이래 봐도 구릉지역이기 때문에 골짜기가 여기저기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골짜기 5개가 있는데 아알론, 소렉, 엘라, 마레사(벧 구부린), 라키스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처음 보는 히브리어 단어같이 보이지만 구약성서에서 알 만한 사건이 일어난 비교적 유명한 지역들입니다.

아알론 골짜기는 여호수아가 아모리족과 싸울 때 주님께 아뢰어 달





라키스 항공사진

을 보고 그대로 서 있어야 했던 지역이고 (여호 10,12), 소렉 골짜기는 삼손이 들릴라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 곳이며 (판관 16,4), 엘라 골짜기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과 필리스티아의 전쟁이 있었던 곳(1사무 17)입니다. 라키스 골짜기는 지중해의 다른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 왕국을 지켜내는 전략적 요충지- 라키스 성이 있었던 곳으로서 여호수아기, 열왕기 등에 많이 등장하는데 특히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에 의해 점령당하고 예루살렘을 압박하는 장면이 인상적이게 씌어져 있습니다. (2열왕 18). 대영박물관에 가면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에서 발굴된 부조를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라키스 점

령장면이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 현장에 가보면 커다란 언덕에 잡초가 여기저기 난 초라한 모습이지요. ‘저기가 바로 라키스 성의 유적입니다.’ 하면 ‘어디요? 여기요? 어머 저는 영국박물관에서 부조를 보고 엄청 기대를 했는데...’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들곤 했습니다. 물론 아얄론, 소렉 골짜기는 가이드 설명 없이는 찾기 좀 어려울 정도로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엘라 골짜기는 아제카tel azekah를, 라키스 골짜기는 라키스 성tel lachish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마레사(벧 구부린)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



에쉬콜 포도나무



셰펠라 올리브나무



마레사(벧구부린)

지는 않은데, 유다 왕 아사가 에티오피아와 싸운 지역이고(2역대 14) 이두매아인들의 거주지로 사용이 되었다가 훗날 로마 비잔틴 시대가 되어 그리스도교의 중요 지역 중에 하나가 됩니다. 십자군 시대의 유적까지 남아있습니다. 나머지 네 개의 골짜기에 비해 우리에게 생소한 지명인데 가보면 제일 볼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특히 종의 형태로 만들어진 동굴이 유명한데 이것은 부드러운 석회암을 파서 수출을 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형태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동굴인데 꽤 인상적입니다. 성 안나 성당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다시 발걸음을 돌려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지역으로 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군데의 골짜기 지역을 보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에서 30km 내에 있어 쉽게 오갈 수 있는 지역인 엠마오입니다. 이 엠마오도 셰펠라 지역에 있습니다. 유다산지에 위치한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으로 떨어진 이 지역은 루카복음서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채로 걸어가는 두 제자에게 다가오셔서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시고 함께 빵을 나누는 너무도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지순례 때 마지막에 텔아비브



엠마우스(트라피스트 수도원)

공항으로 내려가면서 순례하는 곳입니다. 보통 예루살렘에서 부활미사를 봉헌하고 ‘내일은 엠마오를 갑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우리 어디로 피정가요?’라고 물어보는 순례자들이 기억이 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곳이라고 만나고 있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아서 후보지역이 네 군데나 있습니다. ‘엠마오’라는 지명이 ‘따뜻한 물이 나오는 곳’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들은 다 물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짜motza라고 하는 유대인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이 가장 가능성이 희박한 곳입

니다. 두 번째로 라투룬latrun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얄론 골짜기가 끝나는 지점에 위치해있습니다. 이곳은 비잔틴 시대 때 니코폴리스라고 불리우며 큰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루카복음서의 말씀을 토대로 만든 성당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 수도원이 있는데 트라피스트 수도원입니다. 이 트라피스트 수도원은 수사님들이 가꾸신 포도로 만든 와인이 유명합니다.

또 다른 곳은 아부 고쉬abu gosh라는 지역입니다. 십자군 시대 때 지어진 성당이 있으며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토 수도원이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을 언덕에 또 다른



엠마오_아부고쉬 십자군성당

성당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엠마오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궤가 잠시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을 기념하는 성당입니다. 비잔틴 시대의 성당 유적이 남아있습니다. 이곳의 다른 이름이 키르얏 여아림 입니다. 이 지역에서 만드는 후무스(병아리콩을 삶아 올리브유와 함께 으깨어 만든 중동지역 대표적인 소스)가 아주 유명한데 한번쯤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추장 유명한 곳이 순창이듯이 이스라엘에서 구입하는 후무스를 보면 아부고쉬에서 만들었다 표기를 많이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유력한 지역은 엘 쿠베이베 el qubeibeh입니다. 이곳에 프란치스코회가

지키는 엠마오 기념성당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강한 팔레스타인 지역이어서 일반적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쉐펠라 지역은 봄에 꽃이 먼저 피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2월 중순 무렵에 가시면 초록빛 들판을 빨간 아네모네와 개양귀비가 아름답게 수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봄날을 맞이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오늘도 희망해봅니다. 🍀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 고전 문학

『어제의 세계』 (3) - 『어제의 세계』 깊이 읽기

최대환 신부·의정부 교구 / 대신학교

예술과 우정의 이야기

슈테판 츠바이크의 『어제의 세계』는 두툼한 분량만큼이나 다양한 관점에서 읽을 수 있는 풍부한 작품입니다. 먼저 문화적, 예술적 감상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츠바이크가 살았던 시대에 그가 자라난 빈은 문화사에 있어 각별한 의미를 가진 곳이었습니니다. 비록 정치적 위상에 있어 합스부르크 제국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그 수도인 빈은 여전히 가장 높은 감식력과 열성을 지닌 감상자들과 후원자들과 무엇보다도 섬세한 정신과 창조성을 지닌 문화적 천재들을 지닌 문화적 중심지였기에, 그 공기를 호흡하고 그 중요 인물들과 개인적인 배움과 우정의 기회를 지닌 저자가 참으로 생생하게 당시의 문화적 풍경을 증언해주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겠습니까. 문화사와 예술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이 작품이 오랜 세월을 걸쳐 매혹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이 저서의 전반부가 그러한 성격이 두드러집니다. 요즘 들어 세기

말 빈의 문화사와 예술사 그리고 정신사에 대한 좋은 교양서들이 우리말로 여럿 번역 되었는데, 츠바이크의 『어제의 세계』 역시 이 주제에 대한 빼놓을 수 없는 기술입니다. (참조: 칼 쇼르스케, 『세기말 빈』 (글항아리, 2014), 앨런 재닉/스티브 톨민, 『비트겐슈타인과 세기말 빈』 (필로소픽, 2020), 크리스티안 브란트슈테터, 『비엔나 1900』 (예경, 2013)).

이 작품은 또한 우정을 맺는데 남다른 재능과 열정을 지닌 저자의 여러 개인적 우정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시대가 말하게 하는 것’을 자신의 문학적 사명으로 삼은 저자의 예술적 자세와 어울리게 그가 만난 인물들과의 이야기는 풍요와 몰락이 이어진 시대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우정의 모험은 때때로 살아있는 사람을 넘어 역사상의 위대한 예술적 천재들과의 ‘만남’을 통해 확장됩니다. 이는 그가 그토록 흥미진진한 여러 편의 역사적 인물들, 특히 문학적 거장들에 대한 전기를 쓸 수 있었던 원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져 가는 인류에 연연하지 말고 그대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라”

- 슈테판 츠바이크

츠바이크는 『어제의 세계』에서 자신이 인생에 있어 작품 활동 외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활동이 다름 아니라 거장들의 친필수고를 수집하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그가 모은 베토벤과 모차르트, 괴테 같은 위대한 예술가들의 수고는 방대하고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가 나치스에 의해 금지 작가가 되고 서둘러 망명을 떠나야 했을 때, 약탈당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츠바이크에 있어서 거장들의 친필을 모으는 것은, 역사적 간격을 넘어 조금이나마 더 그들과 가까이 가고 그 ‘숨결’을 느끼며 피상적인 숭배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감탄과 존경이 있는 ‘우정’을 맺고자 하는 열망에서 온 것이었고, 그의 작품 활동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괴테와 윌리엄 블레이크를 ‘알아가는’ 여정을 회고하는 대목을 보면 과거의 거장들에게 진심으로 배

우는 자세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우리에게 가장 큰 인상을 주는 것은 우리도 익히 아는 위대한 인물들과 츠바이크가 맺은 깊은 우정일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이 책에서 각별한 대목은 그가 20세기에 꼽히는 명작인 『장 크리스토프』의 저자이자 탁월한 음악적 식견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로망 롤랑 (1866-1944)과의 우정입니다. 두 사람은 일찍이 츠바이크가 파리에 머물면서 많은 예술가들과 개인적으로 교류하며 문화적, 문학적 지평을 넓히던 시기에 만났고, 츠바이크는 자신 보다 훨씬 연장자인 롤랑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우정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시대적 증언이 된 것은 제1차 세계 대전의 와중에 서로 적성국에 속하게 되면서 각기 진력을 다해 평화운동을 하며 서로가 서

로를 격려하면서였습니다. 예술을 사랑하고 자유를 추구하며 국가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자 한 두 사람의 진심이 만나 감동적인 우정의 관계를 낳은 것입니다. 평화운동은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시련의 시간을 겪게 했지만, 그만큼 서로에 대한 존경과 신뢰는 깊어졌습니다.

시대의 몰락에 대한 증인이 된다는 것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제의 세계』를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특별한 작품이 되게 하는 것은 유럽이 보불전쟁이후 누려온 유례없는 문화적, 경제적 안정에서 두 번의 세계 대전이 이르게 되는 몰락과 추락의 시간을 섬세하고 시적이면서도 정면으로 응시하며 증언하는 그의 비감어리면서도 정직한 시선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관찰자로서 안전하게 자리를 지키며 유지한 것이 아니라, 그 혼란과 폭력의 여파를 역시 겪으면서도 자신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잃지 않으려 했던 예술가로서의 윤리라 하겠습니다. 그는 마침내 절망과 소진을 더 이상 견디어 내지 못하는 상황에 다다랐고, 여러 곳의 망명지를 거쳐 마지막에 안식을 찾은 브라질의 페르세폴리스에서 벵틀에게 가

슴 저미는 이별의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 유언장은 우리말 번역본의 서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은 고향 없이 떠돌아다닌 오랜 세월 동안 지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 이 나의 인생에서, 정신적인 작업은 언제나 가장 순수한 기쁨이었으며, 개인의 자유는 지상 최고의 재산이었습니다.

모든 나의 친구들에게 인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원컨대, 친구 여러분들은 이 길고 어두운 밤 뒤에 아침 노을이 마침내 떠오르는 것을 보기를 빕니다! 나는 이 너무나 성급한 사나이는 먼저 떠나가겠습니다. (슈테판 츠바이크, 페트로폴리스, 1942년 2월 22일)”

그가 망명길에 오른 이래,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작업해오던 『어제의 세계』는 사실 근본적으로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시대와 유럽문명을 대표하여 온 생애를 걸고 쓰여진 증언과도 같습니다. 그는 이 저서가 어떻게 이러한 이야기를 담게 되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비통하게 말해줍니다.

“나는 본의 아니게 가장 무서우리만치 이성 이 패배하고 광포한 야만성이 승리하는 광경을 목도한 증인이 되었다. 여태껏 그 어떤 세

대도 우리 세대처럼 그토록 높은 정신적 절정에서 하루아침에 야만의 세계로 몰락한 세대는 없었다. 전쟁은 세 번에 걸쳐 나의 집과 생활을 뒤엎어 버려 모든 지난날로부터 나를 떼어 놓고는, 그 거센 힘으로 나를 허공 속에 내동댕이쳤다.”

‘비가’이자 ‘백조의 노래’로서 비통한 마음이 이 작품의 기본 음조이기는 하지만, 그의 회상과 기억의 이야기 속에는 놀랍게도, 아니 진정한 생의 활력과 예술의 위대함과 야만의 시대에도 빛났던 인간성에 대한 찬탄이 있습니다. 이는 도피나 환상이 아니라, 이러한 아름다움과 선을 모든 힘이 다 소진될 때까지 기억하고 찬탄하고 지켜내야 한다는 시대를 증언하는 예술가로서의 사명이 마지막까지 부여한 영감이자 용기라 하겠습니다. 책의 마지막은 그가 영국에서 망명하던 시절, 이제 영국이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소식을 듣는 1939년 9월 3일의 이야기입니다. 아 이러니하게 오스트리아의 유대인으로서 오스트리아가 히틀러에 의해 독일에 병합되었을 때,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영국으로 망명 온 그와 그의 아내는 법적으로는 적성국에 속하게 되어 체포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는 이제 결국 유럽에서 궁극적으로 떠나야 하는 것을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런던의 거리를 산

책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심경을 적으며 이 작품의 마지막을 맺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과거의 것은 모두 사라지고 성취된 것은 모두 멸망해 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몸 바쳐 살아온 우리의 고향 유럽은 우리의 삶을 훨씬 넘어서 파괴되어 버렸다는 것을 말이다. 뭔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지옥과 연옥을 지나 가야 한단 말인가!

태양은 풍부하고 힘차게 빛나고 있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갑자기 내 앞에 나의 그림자가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이번 전쟁의 뒤에 지난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음을 보았던 것과 같았다. 그 그림자는 내내 나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아마도 그 그림자의 어두운 윤곽은 이 회상의 서의 많은 페이지 위에도 드리워져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그림자는 궁극적으로 빛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벽과 황혼, 전쟁과 평화, 상승과 몰락을 경험한 자만이, 그러한 인간만이 진정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티나씨의 티비보기

유튜브 생중계, 해봤더니 (1)

김은영 크리스티나_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언론홍보 담당

코로나19 사태가 변이 바이러스들의 전파로 끝을 기약할 수 없게 된 지금, 기관들에게 유튜브 생중계는 필수가 되었다. 주교회의도 전국위원회가 주최하는 대외 행사뿐 아니라 직장 공동체의 행사까지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하고 있다.

2020년 중반까지는 행사 생중계를 가톨릭 평화방송이나 외부 중계팀에 맡겨 진행했다. 주교회의의 주 업무가 행사를 직접 하기보다는 전국 교구의 소통을 중개하는 것이기에 생중계를 진행할 인적·물적 역량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행사 실무자들도 생중계는 인력과 장비가 잘 갖춰져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 자체 진행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듯하다.

하지만 교회 기관들의 살림이 빠듯해지면서 중계에 마땅히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어려움도 줄어들었고, 간단한 사양으로나마 화상회의 겸 생중계에 쓸 장비를 외부 기관에서 기증받기도 했고, 자체 진행한 내부 행사의 생중계도 나쁘지 않았는지, 올해는 내가 속한 미디어부(홍보·전산팀)도 대외 행사 생중계를 직접 하게 되었다. 큰 행사는 여전히 전문 중

계팀을 초빙해 진행하는데, 그럴 때면 우리는 생중계 창을 모니터하며 벤치마킹할 장점을 찾아보곤 한다.

유튜브 생중계는 어디까지나 대면 행사의 제약을 보완할 차선택이었다. 그런데 민족화해위원회나 사회복지위원회처럼 전국 조직이 잘 갖춰진 기구의 행사를 치러보니, 생중계는 현장에 단골로 참석하던 근거리의 전문가들과 그러기 힘들었던 원거리의 관계자들을 ‘랜선 앞에 평등’하게 해주었다.

기존의 대면 행사에는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주고받는 에너지가 있었다. 이는 귀한 자원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현장에 참석할 물리적·시간적 여건이 되는 이들의 전유물이기도 했다. 어쩌면 그들은 현장의 에너지에 취해, 행사의 메시지가 얼마나 전파되고 사목 현장에 이바지할지는 속고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통찰은 대규모 행사로 치러졌던 지난 세계 대회들에 대한 교황님의 언급으로 대신하겠다. “그동안 ... 가정들은 기껏해야 텔레비전으로 이 대회에 대한 소식을 접하며 자신들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다고 여

겼고, 수많은 가정들은 이 대회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제10차 세계가정대회에 관한 영상 메시지, 2021.7.2.)

대면 행사의 중단으로 현장의 에너지는 차단되었어도, 사람들은 생중계를 매개로 소통의 새롭고 광범위한 방법을 찾아냈다. 현장에서 실물 책자를 받아야 비로소 볼 수 있었던 자료집은 행사 며칠 전부터 홈페이지에 올려져 널리 공유되었다. 발제자들은 정확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꼼꼼히 준비해 왔고, 한층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발표를 했으며, 사제들은 동시 접속 건수와 실시간 댓글로 화답한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손가락 하트와 강복으로 감사와 애정을 전했다.

장벽인 줄 알았던 카메라 렌즈를 소통의 창으로 삼은 이들의 진심은, 직장 내부 행사인 국장 신부님의 은경축을 위해 직원들이 축하 영상을 촬영했을 때도 고스란히 느껴졌다. 행사도 만남도 오랫동안 끊겼던 공동체에서 축하의 대상자를 위해 장식물을 꾸미고 축하

와 단체 인사를 연습하며 영상을 촬영하는 일은 모처럼 흥을 돋구는 이벤트가 되었다. 대외 행사에서는 청각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 사정으로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시청자들을 위해 문자통역을 지원하는 위원회도 있었는데, 실은 기계가 아닌 속기사가 3시간 내내 행사장 구석에서 발언을 받아 적고 교정 교열해 올리는 것임을 보며 놀란 적도 있다.

생중계는 일꾼들의 자긍심과 유대감을 북돋아 주기도 했다. 많은 인원과 장비가 씬 없이 움직이는 모습을 발제자들이 목격하면서,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하는 이들에게 건네는 인사가 전에 없이 후해졌다. 중계팀도 자료집을 미리 정독하고, 타이틀 자막들을 만들고, 행사장의 세팅을 준비팀과 낱낱이 협의하면서 행사에 대한 애정이 한층 커졌다. 스태프가 전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 보니 부서 간 협조가 원활해지는 소득도 있었다. 물론, 이 장점들이 물리적 소통의 장애를 완전히 극복하게 해주었다는 뜻이 아님은 독자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

성미술 이야기

하느님의 사람,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정용모 신부, 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어느새 가을을 맞았다. 주변의 수목은 저마다의 형태와 빛깔을 가진 열매를 맺는다. 자연은 따가운 햇살과 비바람을 맞으며 제 때에 열매를 맺고 새로운 계절을 준비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지 살펴보곤 한다.

교회에서는 해마다 9월을 순교자 성월로 정하여 순교자들의 고귀한 삶과 신앙을 묵상하고 본받을 것을 권한다. 특별히 올해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1821-1846) 사제 탄생 2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그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올곧게 사신 분이다. 우리는 김 신부님의 큰 사랑을 여러 자료와 편지, 특히 옥중 서간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성당 곳곳에서는 김대건 신부님의 성화나 성상이 설치되어있다. 수많은 사람이 찾는 명동성당 내부와 정원에서도 그분을 가까이 만날 수 있다. 성당 내부에 있는 신부님 초상화는 문학진 화가의 작품이고, 제단 부근의 동상은 이춘만 조각가의 작품이다. 성당의 문화관 마당에 있는 두상은 이수홍 조각가가 만든 최근의 작품이다.

명동성당의 여러 성상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이는 것은 정원에 있는 김대건 신부상이다. 이춘만 조각가는 그분이 체포되었을 때의 모습을 2002년에 제작하였다. 홀저고리에 상투를 쓴 김 신부님은 두 눈을 부릅뜨고 앞을 내다본다. 세상에 살면서도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믿고 바라던 사제의 강인한 모습이 형상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분은 십자가나 목주 등 어떤 성물도 들지 않았지만 형상 자체에서 성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성상의 거칠고 투박한 선은 신부님이 살았던 박해 시대의 어둠과 암울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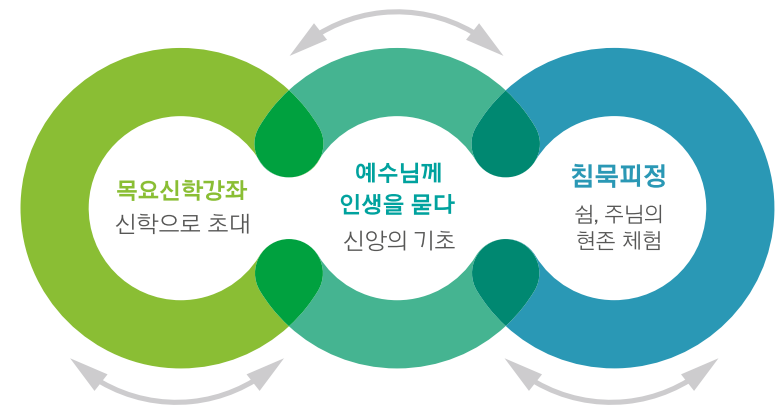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상, 이춘만(1941-), 2002년, 청동, 92x77x40cm, 명동성당 사제관 옆

2021 한국 CLC 하반기 교육

오늘날 명동성당은 신자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장소요 휴식처이기도 하다. 특히 주변의 직장인들은 마당을 자신들의 휴식 공간으로 여겨 거닐다가 돌아간다. 이때 어김없이 눈에 마주치는 것이 하느님의 사람, 김대건 신부상이다. 그분은 우리와 동떨어진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신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우리보다 조금 앞선 시대, 200년 전에 태어나 사셨던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충실하면서도 철저한 삶을 가꾸셨다. 그런 삶이 이 시대의 우리에게 모범으로 다가온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이런 사람들에게 김대건 신부님은 하느님께 대한 신앙과 이웃 사랑을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없이 가르쳐준다. ☺

‘하느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구분	과정명	지역	기간	장소
신학강좌(6주)	목요신학강좌	서울	10/21~11/25(목)	한국 CLC (온라인 병행)
영성강좌(6주)	예수님께 인생을 묻다	수원	10/5~ 11/9(화)	수원교구청
		대구	10/13~11/17(수)	대구교구청
침묵피정(2박3일)	평신도를 위한 침묵피정	시흥	11/5~11/7(금~일)	성바로 피정의 집
기도훈련(6주)	평신도를 위한 기도훈련	서울	9/7~10/19(화)	한국 CLC (온라인)

* 각 강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CLC 홈페이지(www.kclc.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강좌 일정은 교구지침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해주는 예수님 이야기 1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해주는 예수님 이야기 1』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녀들이 함께 보는 도서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린 손자녀들에게 신앙을 전달해 주시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이 도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올해(2021) 제정하신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에 맞추어 발간되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녀들이 함께 읽고, 작업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장씩

1장 예수님의 고향을 찾아서 - (1) 세계 지도를 통해	10
2장 예수님의 고향을 찾아서 - (2) 이스라엘 지도를 통해	12
3장 예수님 탄생 예고 (루카 1,26-38)	14
4장 마리아, 천축 엘리사벳을 찾아감 (루카 1,39)	16
5장 마리아, 천축 엘리사벳을 만남 (루카 1,40-56)	18
6장 마리아의 남편 요셉 (마태 1,18-19)	20
7장 요셉의 꿈에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 (마태 1,20-25)	22

문제 풀이보기

- ★ 3장~7장까지 각 장마다 색칠(컬러링)과 스티커 작업이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 ★ 7장을 끝낸 후, 함께 풀어보는 문제 풀이를 통해 앞의 내용을 한 번 더 익히실 수 있습니다.



값 7,500원

가톨릭 서점(분도출판사 · 가톨릭출판사 · 바오로딸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종고추 수비초 (Cannuum)

조선에 고추가 전래된 것은 16세기 말과 17세기 초 사이로 추정된다. 《지봉유설》(1614)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남만초(南蠻椒)는 많이 독하다. 왜국에서 처음 왔기 때문에 속칭 왜겨자(倭芥子)라 불린다.

고추가 전래되기 전까지 한자 ‘초(椒), 산초(山椒)·초피(천초, 川椒)·후추(호초, 胡椒)’ 등 매운 양념을 통칭해 불렀다. 때문에 토종고추의 경우 초로 많이 불린다. 수비초는 1960년 수비면 오기1리에서 재배되고 있던 고추 중 목지가 우산형이고 끝이 뾰족한 것으로 외관상 모양이 좋고 품질이 좋은 것을 채종하여 자가 선발 재배하던 것으로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1965년부터 점차 확대되었고, 오늘날 영양고추로 널리 알려졌다.



토종고추의 특징!

수비초, 칠성초, 청룡초, 일월초 등 재래종 고추는 종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매운맛과 단맛이 조화롭다는 점이 특징이다. 수비초는 캡사이신 함량이 34.1mg으로 일반고추 5.8mg에 비해 5배 배꼽인데, 단맛이 돌면서 시원해 한국인 입맛에 제격이다. 한편 칠성초는 매운맛이 약하고 짧고 통통하며 병에 강하고, 청룡초는 전혀 캡지 않다.



추석선물로 우리농운동에 함께 해요!



www.wrn.or.kr



facebook.com/wrn.kr



seoulwurinong





순례로 함께하는 희년의 기쁨 9월愛 동행

‘천주교 서울 순례길’ 걷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세요!

1 — 순례길 걷고, 기부하기

8월 15일(일) — 9월 26일(일)

참여방법

- ① 성지 및 순례지(11곳),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순례자여권세트’ 구입
- ② 천주교 서울 순례길 걸으며 스탬프 찍기
- ③ 9월 26일(일) ‘순교자성원을 담은 미사’에 참여하여, 순례자여권 제출 후 축복장 수령

※ 구입처 : 가회동성당 / 광희문순교자현양관 / 교구역사관(명동) / 국군중앙성당(해고개성지) / 당고개순교성지
삼성산성당 / 새남터순교성지 / 서소문밖네거리순교성지 / 절두산순교성지 / 종로성당 / 중립동약현성당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

※ 순례자여권세트 구입비는 전액 이웃사랑실천 기금으로 사용

2 — 순교자성원을 담은 미사

9월 26일(일) 오후 3시 /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완주여권 제출 후 축복장 수령

순교자현양위원회

TEL : 02-2269-0413 / www.martyrs.or.kr

주최·주관 : 천주교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후원 : 서울서,종구,홍익구,용산구,마포구,청소년회,문화홍보국,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